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식

# 축 사



2022. 12. 9.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된 지 74주년이 되는 오늘,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 보장을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각국이 참여하여  
선포한 역사상 최초의 인권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수많은  
국제인권규범 탄생의 초석이 되었고, 모든 국가에서 증진  
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인정될 때 세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우리 인류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 양극화 및 기후변화 등을 통해 체감하고 있듯이, 우리가 놓인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이상, 그 속에서 어떻게 인권을 실현할 것인지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일련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짓고 있는 건축물과 같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에서 재구성하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질서 및 국제질서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그것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인권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존엄, 자유, 정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구촌 시대에 국제적 평화 없이는 개별 국가의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상적인 헌법국가의 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한편 인권보장은 사회

평화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이를 구체화해 온 국제인권규범들이 보편적인 강행규범으로 발전해 나아갈 길을 모든 인류가 함께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한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가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역사의 흐름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조화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